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3·1운동 배경과 정신

올해 3월 1일은 3·1절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 일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다.

일본은 1910년 국권 침탈로 우리나라를 빼앗아 식민지통치를 하면서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한민족의 토지 금융 광산 철도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경영 하면서 한민족의 경제 발전을 극도로 제한하였다.

3·1운동은 일제 강점 시대에 가장 빛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모든 계층이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전국적이었다.

또한 조선 민족이 일본의 통치를 달게 받는다고 한 일제의 선전이 허위였음을 일시에 폭로한 운동이었다. 이러한 3·1운동은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의 사상적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 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계몽 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 경찰제도를 시행하여 항일 독립운동 투사

들을 학살·투옥하고, 모든 결사(結社)와 언론 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 정책에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특히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小作農)·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여 만주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학생·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

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은 14개 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 원칙을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어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고종황제의 人山(장례) 일이 3월 3일로 정해지자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은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전국에 있는 천도교 불교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모이게 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다.

이것을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3·1운동의 배경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일본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억압하자 애국지사들은 해외로 나가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독립운동을 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해방 후 3·1운동의 날을 3·1절 국경일로 정해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3·1운동 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3·1절을 지금까지 우리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로 생각해 왔으며 3·1절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면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고 있으면서 국기 게양조차 하지 않는 가정이 많다.

우리는 일본에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주독립을 하기 위해 일본에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에 의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 가지에서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일본의 무력진압에 맞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져 8·15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정부 수립 후는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독재와 맞서 4·19학생의 거로 이어졌고, 군부 독재와 항거한 5·18 광주 항쟁으로 이어져 오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 자주독립 정신으로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올해 102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비폭력 평화주의 원칙의 3·1운동 정신을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국가 수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3D펜으로 재현한 3.1 운동 정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에 최근 한 크리에이터가 3D펜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만드는 동영상 업로드 한 적이 있다.

5분 남짓한 짧은 영상에는 '서대문 형무소'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크리에이터 나름의 방식으로 서대문 형무소의 건축 구조물을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한뼉한뼉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배에 맞섰던 수많은 독립투사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군사독재시절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가를 수감하던 악명 높았던 감옥이다.

현재는 그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운영되어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의식과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하였다.

3.1절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

게 치러진 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급변하는 정세와 발전하는 기술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상에 지친 우리는 빨간 버튼 세상 속에서나마 '3D펜으로 서대문 형무소 만들기' 영상보다 '떡방' 영상이나 '취미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일상의 고단함을 달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한 크리에이터처럼, 이름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

도록 하는 작은 움직임과 노력들이 모인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3.1운동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내리라 믿는다.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곤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여러 디지털 플랫폼들이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3.1운동정신과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홍/전남서부보훈지청보훈과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형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